"韓불교 해외포교 위해선 현지 법인화 필수"

조계종 교류단, 10월 8일 뉴욕서
미동부지회 현장 간담회 개최해
진우스님 "선명상 세계화" 당부
스님들 "종단 지원 필요" 강조도

미국 뉴욕=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한 · 미 전통불교문화교류 행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교류단이 10월 8일 미국 동부지역 사찰 주지스님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2024년 한·미 전통불교문화교류 행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교류단이 미국 동부지역 사찰 주지스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동부지역 포교일선에서 활동하는 스님들과 소통하며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10월 8일 오후 6시부터 뉴욕 글래시하우스 첼시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미동부지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문 원영 스님, 지회장 지광 스님, 총무국장 성향 스님, 재무국장 선문 스님, 사무국장 석림 스님, 포교국장 고우 스님, 사회국장 선명 스님, 교무국장 유진 스님 등이 대거 참석했다.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미동부지회장 지광 스님은 환영사에서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이번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광 스님은 "이번 행사는 세계 경제뿐 아니라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역인 뉴욕에서 한국불교의 전통과 위상을 펼칠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이번 방문이 미국의 다양한 문화를 함께 접하고 우리의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해외포교를 위해 동분서주 애쓰는 스님들을 치하하고 종단도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 9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한 국제선명상대회를 설명한 스님은 "불자 인구가 감소하는 등 한국불교가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 선명상은 불교 고유의 정신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라면서 "선명상 세계화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양자 물리학과 불교의 유사성을 언급하며 "부처님 말씀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학문과 교류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미동부지회 활동 현황 보고의 시간을 가졌다. 뉴욕 대관음사 주지 고우 스님의 발제에 따르면 현재 뉴욕 9곳, 뉴저지 3곳, 캐나다 토론토 2곳 등 미동부 및 캐나다 지역에서는 사찰 22곳이 운영 중이며 스님 34명이 포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매년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연합으로 개최한다. 연등행렬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에서 포교활성화에 애쓰고 있다. 유엔에서 열리는 베삭데이에 한국을 대표해 참여, 세계에 한국불교를 알리는 데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밖에도 요양원 봉사, 한국문화학교 운영,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이날 고우 스님은 앞으로 더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종단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사찰 상황을 고려한 행정절차 간소화 △현지 법인화 △유엔 등 국제기구 활동 지원 △장학승 제도 확대 등의 지원 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천태 깃발 휘날리며 일승 묘법 펼치라"

천태종, 대충 대종사 열반 31주기 기념법회

10월 5일 단양 구인사서
도용 종정예하 등 참석해
덕수스님 "정진으로 성불"

천태종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 대종사의 유훈을 기리는 법석이 마련됐다.

천태종(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10월 5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 광명전 5층에서 '대충 대종사 열반 31주기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도용 종정예하를 비롯해 원로원장 정산 스님, 총무원장 덕수 스님, 종의회의장 세운 스님, 감사원장 진덕 스님 등 종단스님과 김형동 천태종 중앙신도회장(국민의힘 국회의원), 안병근 금강대 총장, 이상훈 단양군의회의장, 이혜옥 단양군 부군수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열반 31주기 기념대법회에서는 도용 종정예하의 헌향·헌다·헌화에 이어 영제 스님과 용덕 스님의 종사영반 의식과 종단 대덕스님 및 참석내빈의 헌향·헌화가 진행됐다.



천태종은 10월 5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 광명전 5층에서 '대충 대종사 열반 31주기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제공=금강신문

도용 종정예하는 법어를 통해 "거룩한 원력으로 사바에 나투시어 인연 중생 자비롭게 거두어 주시고 법력 펼치시어 불법 중흥 이루셨어라. 무명번뇌 멸진하여 열반으로 장엄하시니 법신으로 돌아가사 지혜의 큰 광명 비추시니 사부대중은 거룩하신 대충 대종사님 따라 일대사 인연 대명을 받들어 온 누리 천태의 깃발 휘날리며 일승묘법을 널리 펼치라. 바른 법 만나기 참으로 어려우니 일심으로 국태민안과 인류의 평화를 염원하며 성불의 길을 힘차게 정진하라"고 설했다.

이어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부단한 정진을 대중에게 당부했다. 덕수 스님은 "대충 대종사께서는 〈초발심자경문〉의 '백 년 동안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에 티끌로 사라져도, 사흘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가 된다(百年貪物一朝塵, 三日修心千載寶)'는 구절을 통해 '가장 값지게 사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진리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것'이라 설명하셨다"면서 "대종사는 '티 한 점 없이 맑고 깨끗한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되찾는 방법은 마음을 닦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천태종도들은 부지런히 정진하고 마음을 닦아 성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천태종 중앙신도회장은 봉행사에서 "산이 높으면 물길이 길고 그 물길을 따라서 뭇 생명이 나고 자라는 법이니, 대충 대종사의 높은 가르침이 오늘의 교세를 이뤘고 앞으로도 무궁토록 그 덕화가 빛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열반대재가 끝난 뒤 종단스님들과 신도들은 오후 1시부터 강 건너 대충 대종사 적멸궁에서 적멸궁재를 지냈다. 신중일 기자

금강대 총장에 안병근 전 공주교대 총장

학교법인 금강대 이사회
9월 30일 만장일치 선임



천태종립 금강대 제9대 총장에 안병근 전 공주교육대학교 총장〈사진〉이 선임됐다.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이사회(이사장 도용 종정예하)는 9월 30일 단양 구인사 삼보당에서 제149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안병근 금강대 총장 후보자를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선임 직후 학교법인 금강대 이사장인 도용 종정예하는 안병근 신임 금강대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4년이다.

안병근 신임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강대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안 총장은 "천태종도의 일원으로서 종립대학 총장 소임을 맡게 돼 한편으론 기쁘면서도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제가 그동안 쌓은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금강대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중일 기자

'불발, 부처님 발우 이야기' 출판문화상 대상

조계종, '올해 불서 10' 발표
오는 10월 24일 시상식 개최

권오민 경상국립대 명예교수의 저서 '불발, 부처님 발우 이야기'가 제21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에 선정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윤창화)는 10월 8일 2024년 올해의 불서 10 및 제21회 불교출판문화상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우수상은 '인생의 괴로움과 깨달음(강성용/불광출판사)'과 '헬로 민다나오(이원주/정토출판)'이 수상했다. 붓다북학술상에는 '한국불교서사의 세계(김승호/소명출판)'가, 보덕전법상에는 '슬기로운 출가생활(조계종 교육원/담앤북스)'이, 한길번역상에는 '깟짜야나 문법 상, 하(깟짜야나 저, 김서리 역주/세창출판사)'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입선작으로는 △다송자 금명보정(현봉 스님/조계종출판사) △도표로 읽는 반야심경(김명우 글, 배종훈 그림/민족사) △불교와 이슬람, 실크로드에서 만나다(요한 엘버스커그 저, 김인성 옮김/한울엠플러스) △붓다의 생활수업(박경준/우리출판사)이 선정됐다.

대상에는 상금 1000만원(출판사와 저자 각 500만원)이, 우수상에는 400만원(출판사와 저자 각 200만원), 붓다북학술상과 보덕전법상, 한길번역상에는 200만원(출판사와 저자 각 100만원), 입선작은 100만원이 수여된다.

제21회 불교출판문화상 시상식은 10월 24일 오후 3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문화대전 폐막식과 함께 진행된다. 김내영 기자

조계종, 제32회 불교언론상 수상작 발표

불교언론인상 수불 스님 선정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0월 8일 제32회 불교언론문화상 수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제32회 언론문화상 대상은 KBS1 '부처님오신날 특집 다큐-우리들의 힙hip한 출가'가 수상했다. 최우수상에는 방송부문 KBS1 '6.25 특집 다큐-산사의 전우들', 라디오부문 BBS 제주불교방송 '요즘 스님', 언론보도부문 불교신문사 '명상, 공교육을 만나다', 뉴미디어 부문 BBS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 '키워드 인터뷰'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불교언론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에게 수여되는 '불교언론인상'은 수불 스님이 수상했다. 김내영 기자

금정총림 범어사 1346주년 개산대재

시민과 함께하는 달빛 명상 걷기대회

일 시 2024년 10월 17일(목) 오후 6시 30분
걷기구간 경동아파트 입구 ~ 보제루 앞마당
※LED 캔들 라이트 기념품 배포

걷기대회 후 문화행사 보제루 앞마당 무대
• 방장스님 마음 다스리기 (싱잉볼) • 첼로 독주 공연 • 현악 5중주 공연

개산대재 법요식

일 시 2024년 10월 18일(금) 오전 10시 30분
장 소 범어사 대웅전 앞마당

■ 문 의 : 범어사 종무소 051-508-3122 (ARS 1번)
■ 참가대상 : 누구나

